

#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 어머니 양육행동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ense of Self-identi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lations between the Maternal Mother's Behaviors and the Children's School Satisfaction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박 사 조 한 숙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문 혁 준

Department of Child & Famil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 : Cho, Han Suk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Hyuk Jun Moo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This study had a purpose to present a comprehensive grasp of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a sense of self-identity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participants were 310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the fourth to sixth grades and who were currently enrolled in North Jeolla Provi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for a sense of self-identity according to the children's gender.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of the mothers. Second, the boys' self-identity was affected by mother's rejection of discipline/reprimand behaviors and the girls' self-identity was affected by school satisfaction. Last, children's self-identity was affected by the mother's nationality(Japan, China, and Philippine).

**주제어(Key Words)** : 자아정체감(self-identity), 어머니 양육행동(mother's behaviors), 학교생활만족도(school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Hyuk 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an 43-1 Yokgok2-Dong, Wonmi-Gu, Bucheon City, 420-743, Korea Tel: +82-2-2164-4486 Fax: +82-2-2164-4485 E-mail: mhhyukj@unitel.co.kr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확대로 2000년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민족적 순수성에서 탈피하여 다민족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의 여러 나라처럼 다양한 이민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맞는 것이다.

그러나 국경선이 짧고 식민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는 사실 외국인을 접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단일민족국가’ 자체는 사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전혀 함의하지 않은 중립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순혈주의적 가치관은 다른 민족, 타문화에 대한 배타주의의 바탕이 되어 상대주의적 문화소통을 위한 여지를 남겨 주지 않는다(최정순, 2008).

아직까지 한국의 국민적식은 급속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속에서 다문화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1980년대 말에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외국인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결혼이다(윤희숙, 2004; 한건수, 2006). 전체 혼인에서 국제결혼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2003년 이후인데 그 원인은 한·중 양해각서의 폐지로 혼인절차가 간소화된 것과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난립과 연관된다. 이해령(2006)에 의하면, 2000년에 약 1만 2천명이던 국제결혼 건수가(전체결혼 건수의 3.7%), 2005년에 약 4만 3천 건(전체결혼 건수의 13.6%)으로 약 4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미 농촌지역은 1/3쌍이 국제결혼 부부이고, 이런 추세라면 7~8년 후엔 초등학교 학생의 1/4 정도가 국경 없는 가족의 자녀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의사소통문제, 교육문제, 인권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각자의 성장배경이 다르고 인성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양식에도 차이가 있어서 상호적응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국제결혼한 부부는 이외에도 언어적 장벽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문제들이 가중되어 적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양순미, 2006).

이와 함께 국제결혼한 부부의 부적응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동일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2세대 자녀의 적응문제이다. 실제로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 어머니가 결혼과 동시에 입국하고 출산과 양육, 가정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어머니들은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오성배, 2005). 또한 출생이후 다른 문화와 언어

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기 때문에 또래들과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김갑성, 2006), 어머니의 언어적 장벽 및 2개 국어 병용,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부진, 정체성 혼란 등 여러 측면에서 발달적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른 민족·인종·종교 혹은 다른 국적간의 이질적 결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래전부터 조사해 온 외국인의 경우, 많은 연구들이 이질적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Cohen, 1982). 특히 외모가 이국적이거나 평범하지 않고 가정배경 또한 전통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준과 가치가 대립되는 두 문화적 환경사이에서 자녀들은 방향하게 되며(Garrod, Ward, Robinson, & Kikenny, 1999; Porterfield, 1982; Williams, Nakashima, Kich, & Daniel, 1996), 이것은 십대들에게 “나는 어디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하게끔 하며, 사회적 수용에 대한 불안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한다. 또한 학교환경에서 정체성 갈등, 학업과 행동상의 문제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Herring, 1992; McRoy & Freeman, 1986), 두 문화 사이에 놓여 어느 한쪽 문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또한 정체 불명의 존재라는 이유로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또래들로부터 거부를 당한다고 한다(이소희, 최운선, 2008).

박미경(2006)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에 자녀들은 문화적 정체감 자각에서 어머니 나라에 대해 무시하거나 언급을 회피하며 한국 사람으로 자각하는 형태, 한국과 어머니 나라 모두를 자신의 나라로 인식하는 형태, 다른 아이들과 어머니 나라가 다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자녀들 또한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어머니의 영향 및 두 나라의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한국의 학교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는 과정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정체성 혼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성배, 2005;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최영인, 2006). 청소년의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낮은 소속감과 자아정체감 그리고 상당수는 이중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로 혹은 ‘외국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정하성, 우룡, 2007).

자아정체감은 유아기 이후 가정환경을 통하여 그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과 부모와의 동일시로부터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과 함께 구조적 통합을 이루며 보다 넓게 확대 문화되어 간다. 박아청과 이승국(2000) 그리고 이강이(2002)는 아동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일수록 높다고 하였으며,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와 가족의 영향력은 자아정체감의 형

성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Grotevant & Cooper, 1985).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연구로 Poston(1990)은 다문화 및 다인종의 아동은 또래압력이나 부모를 모델링하면서 하나의 인종을 지향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되고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받은 문화유산 가운데 한 측면을 부정하게 됨으로써 죄책감과 혼동을 경험하게 되어 단일인종의 아동들과는 다르게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언급하였다.

학교환경 또한 사회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아동들은 교사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대인관계를 확장하고 자신의 역할과 정체감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학습활동과 학습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질과 성격을 발달시켜 나간다. 학업성적이 높으면 자아정체감도 높고(구창모, 2005),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고(이현림, 천미숙, 2003), 학교적응도 잘 이루어진다(민하영, 권기남, 2004)고 하였다. 초등학교생들은 또래 관계를 통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혼혈이라는 놀림으로 또래관계에서 실패하여 외톨이가 되거나 따돌림을 받게 되면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실패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김경자, 2008).

또한 일반가족을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들은 성별 요인에 대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2003), 김지연(1999), 황지연(1999)의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노경숙(1983)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창진(2003)의 연구에서도 남자 아동이 여자아동에 비해 자아개념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정체감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나마 연구대상도 일반 아동으로 국한되어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정체감의 형성은 유아기 애착의 출현에서부터 시작되어, 아동기의 경험과 동일시에 그 뿌리를 두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달하며, 노년기에 이르러 인생의 회고와 더불어 통합감을 이를 대 비로소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정옥분, 1998, p. 52). 따라서 연령 증가에 따라 정체감 수준이 높아지고 안정되어가는 경향을 보고하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다(서봉연, 1975; Dignan, 1965; Waterman, 1992). Erikson의 이론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발달해 간다는 점성적인 역할을 취하고 있으므로 학년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성별과 학년), 가정의 심리적 환경인 어머니 양육행동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자아정체감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휘되고 실현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첫째, 언어문제, 문화충돌 및 자녀양육문제,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파악(김상임, 2004; 안현주, 2006; 채옥희, 홍달아기, 2007; 한국염, 2004)하는 것과 둘째, 국제결혼가정의 여성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학습부진, 자신감 부족, 사회성 부족,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고하는 연구들(오성배, 2005, 2007; 이승은, 서현, 2008; 정은희, 2004), 셋째,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많은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수준과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정체감(송선진, 2007; 신지혜, 2008; 신혜정, 2007; 안은미, 2007)의 관련 요인을 밝히는 내용이었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축적되었음에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지고 들어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 1990년대 초 국제결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 중국, 일본, 필리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전반적으로 퇴보되면서 국민의 고용기회가 위축되고 고실업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의 급격한 사회 및 경제적 변화는 여성들의 경제적 위기를 격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으며, 집단체제의 붕괴와 시장경제의 출현으로 취업시장에서 남성과의 경쟁에 여성의 취업률은 저하되었다(한건수, 설동훈, 2006). 중국 조선족과 한족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두 집단은 사회주의 물질 가운데 그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다. 고도의 성장을 일궈낸 한국은 노동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에서 노동인력을 유입하는 입장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중국여성들의 경우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이 매력적인 선택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노하나, 2007).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종교단체를 통해 만났다는 사람이 다른 경로보다 많았다. 교주가 한국인인 이 종교에서는 일본인 아내들이 한일의 역사와 관련지어 한국과 한국인에게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세계평화의 중심이 한국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이는 한국의 남성을 선택하여 결혼하였다기보다는 한국과 한국의 종교를 선택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내들이라고 할 수 있다(김석란, 2007).

필리핀 사회에서 결혼이주의 역사는 식민지배의 역사와 무

관치 않다. 50년간 미국이 지배하였고 1946년 종전과 함께 독립하지만 오늘날까지 미국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다(유석춘, 1994). '전쟁신부' 혹은 '미군아내' 라고 불리는 이 여성들은 필리핀 여성들의 결혼이주의 효시가 되었다(이혜경, 2005). 필리핀 여성의 결혼이주는 국민 10명 중 1명이 이주자인 일상화된 이주라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주로 서구 남성과 이루어지던 필리핀 여성들의 결혼이주는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입국하기가 쉽고, 해외취업중개사에 지불할 비용이 적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많은 실태조사들이 이렇듯 출신국가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주여성 집단으로 동질화해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어머니 국적에 따라 자아정체성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신혜정, 2007)를 보면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생애를 통한 성공과 행복, 실패와 불행이라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인 자아정체감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가정의 심리적 환경인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변인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출신국가별로의 한국이주 특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체계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며, 나아가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나 부모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성별, 학년, 어머니 국적)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정체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 국적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가 함께 한국에 거주하면서 학교교육을 받는 다문화가정 아동 310명이다. 전라북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약 160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은 거의 모두 조사하였다.

연령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으로 자아정체감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경험의 축적과 동일시 및 그 구조적 통합을 통해 일생 동안 발달(Erikson, 1980)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N = 310)

	구분	빈도	백분율(%)
학년	4학년	110	35.5
	5학년	90	29.0
	6학년	110	35.5
성별	남	157	50.6
	여	153	49.4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이하	150	48.4
	대졸	115	37.1
	대학원 이상	21	6.8
	무응답	24	7.7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이하	223	71.9
	대졸	56	18.1
	대학원 이상	10	3.2
	무응답	21	6.8
외국인 어머니의 출신국가	중국	102	32.9
	일본	150	48.4
	필리핀	45	14.5
	태국	3	1.0
	베트남	5	1.6
	몽골	1	.3
	러시아	1	.3
	인도	1	.3
	브라질	1	.3
	우즈베키스탄	1	.3

아동의 학년은 4학년 110명(35.5%), 5학년 90명(29.0%), 6학년 110명(35.5%)이었으며, 성별은 남아 157명(50.6%), 여아 153명(49.4%)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 150명(48.4%), 대졸 115명(37.1%), 대학원 이상 21명(6.8%), 무응답이 24명(7.7%)이었다. 반면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223명(71.9%), 대졸 56명(18.1%), 대학원 이상 10명(3.2%), 무응답이 21명(6.8%)로 고졸이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보다 학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중국(32.9%), 일본(48.4%), 필리핀(14.5%)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모두 아동이 지각한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 1) 자아정체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측정도구로 박아청(2003)이 개

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주제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감의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280부와 본조사 310부를 통하여 하위요인별로 요인 부하량이 높은 6문항씩을 선정하고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총 36문항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시 직교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자아정체감 모두에 대해 박아청(2003) 도구의 6가지 하위 영역이 확인되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법을 적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영애(1995)의 아동용 양육행동 척도를 기초로 하였다. 이 도구는 온정·수용행동, 허용·방임행동, 거부·제재행동의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응답하기에 문항 수가 많다고 생각하여 하위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10문항씩을 선정하고 이를 재요인분석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김문정(200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주 다르다(1점)’에서 ‘아주 비슷하다(4점)’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별로 아동이 어머니가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3) 학교생활만족도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의 선행연구와 USA Group Noel-Levitz(2003)의 연구, Missouri School Improvement Program(MSIP)에서 제시한 평가내용을 참고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감안하여 강운정(200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 영역으로는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학교행사 및 특별활동 영역으로 각 하위별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환경이 유사한 농촌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각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N = 310)		
척도	문항수	신뢰도
<b>자아정체감</b>	<b>36</b>	<b>.88</b>
주체성	6	.77
자기수용성	6	.71
미래확신성	6	.69
목표지향성	6	.71
주도성	6	.70
친밀성	6	.69
<b>어머니 양육행동</b>		
온정·수용	10	.89
거부·제재	10	.81
허용·방임	10	.76
<b>학교생활만족도</b>	<b>30</b>	<b>.91</b>
학습활동	6	.78
교우관계	6	.75
교사와의 관계	6	.81
학교환경	6	.69
학교행사 및 특별활동	6	.69

2) 본조사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본 조사는 2009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323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31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연구도구들은 요인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만족도는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양육행동은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는 하위 요인으로 분석하고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은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어머니 국적),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정체감의 차이

##### 1)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정체감의 차이

다문화가정 아동이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 정도를 다르게 지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온정·수용, 허용·방임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거부·제재 요인( $t = 1.99, p < .05$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아 집단( $M = 1.88, SD = .53$ )이 여아 집단( $M = 1.75, SD = .56$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부모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아동을 통제하는 거부·제재 요인을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은 남아 집단과 여아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학년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정체감의 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년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자아정체감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어머니 양육행동과 자아정체감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 = 3.28, p < .05$ ). 5학년( $M = 3.74, SD = .62$ ), 4학년( $M = 3.70, SD = .58$ ), 6학년( $M = 3.54, SD = .53$ )으로 나타났다. 하위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후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학년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자아정체감과의 차이

(N = 310)

변인	연구집단	4학년	5학년	6학년	F
		(n = 110)	(n = 90)	(n = 110)	
		M(SD)	M(SD)	M(SD)	
어머니 양육행동	온정·수용	2.91(.74)	3.06(.64)	2.90(.63)	1.60
	허용·방임	1.87(.57)	1.92(.42)	1.82(.44)	1.05
	거부·제재	1.82(.60)	1.84(.50)	1.79(.53)	.236
학교생활만족도	3.70(.58)	3.74(.62)	3.54(.53)	3.28*	
자아정체감	3.52(.50)	3.46(.54)	3.49(.53)	.359	

\* $p < .05$ .

<표 3>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정체감의 차이

(N = 310)

변인	연구집단	남아(n=157)	여아(n=153)	t
		M(SD)	M(SD)	
어머니 양육행동	온정·수용	2.92(.68)	2.99(.68)	-.92
	허용·방임	1.86(.47)	1.87(.51)	-.23
	거부·제재	1.88(.53)	1.75(.56)	1.99*
학교생활만족도		3.64(.58)	3.67(.59)	-.43
자아정체감		3.46(.51)	3.52(.53)	-1.03

\* $p < .05$

##### 3) 국적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정체감의 차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정체감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1990년대 초기에 국제결혼의 사례수가 많은 상위 3개 국가는 중국, 일본, 필리핀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나 어머니의 국적을 3개 국가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따라서 사례수는 상위 3개국의 297명이다.

국적별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은 온정·수용( $F = 3.30, p < .05$ ), 거부·제재( $F = 3.59, p < .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 중 부모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아동을 통제하는 거부·제재 요인에서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 $M = 2.01, SD = .58$ )이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 $M = 1.77, SD = .54$ )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정체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 = 5.87, p < .01$ ). 하위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정체감은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동( $M = 3.63, SD = .58$ )이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 $M = 3.42, SD =$

<표 5> 국적에 따른 어머니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정체감의 차이

(N = 297)

변인	연구집단	중국 (n = 102)	일본 (n = 150)	필리핀 (n = 45)	F
		M(SD)	M(SD)	M(SD)	
어머니 양육행동	온정 · 수용	3.09(.62)	2.94(.67)	2.79(.77)	3.30*
	허용 · 방임	1.84(.47)	1.83(.45)	2.00(.63)	2.69
	거부 · 제재	1.78(.53)	1.77(.54) <sup>a</sup>	2.01(.58) <sup>b</sup>	3.59*
학교생활만족도		3.74(.57)	3.60(.58)	3.64(.61)	1.76
자아정체감		3.63(.58) <sup>a</sup>	3.42(.47) <sup>b</sup>	3.40(.49) <sup>b</sup>	5.87**

영문자는 Scheffé 검정결과임

\* $p < .05$ . \*\* $p < .01$

.47)과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 $M = 3.40, SD = .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문제에서 설정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투입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r = .51$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회귀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계수와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한 결과 VIF지수는 1.2~2.2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rbin-Watson계수도 1.6~2.3으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각각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묶어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은 순서대로 투입하여 각 변인의 설명력 변화와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회귀모델에서 변인들의 발생 순서에 의거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가장 먼저 투입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 모델 I에서 어머니 국적#1, 어머니 국적#2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

으며( $F = 2.95, p < .05$ ), 모델 II에서는 어머니 국적#1( $\beta = -.20, p < .01$ )과 함께 온정 · 수용( $\beta = .35, p < .001$ ), 거부 · 제재( $\beta = -.41, p < .001$ )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beta = .29, p < .001$ ), 어머니 국적#1( $\beta = -.18, p < .01$ )과 거부 · 제재( $\beta = -.38, p < .001$ )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어머니를 둔 남아에 비해 일본인 어머니를 둔 남아의 자아정체감이 낮고, 어머니 양육행동이 덜 거부적이며 덜 제재적일 때 자아정체감이 높아지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남아의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남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머니 양육행동의 설명력( $R^2 = .37$ )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만족도( $R^2 = .06$ ), 사회인구학적 변인( $R^2 = .06$ )이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남아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어머니 양육행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델 III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남아의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거부 · 제재( $\beta = -.38, p < .001$ ), 학교생활만족도( $\beta = .29, p < .0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아의 경우 모델 I에서 어머니 국적#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델 II에서는 어머니 국적#1( $\beta = -.16, p < .05$ )과 함께 허용 · 방임( $\beta = -.22, p < .01$ ), 거부 · 제재( $\beta = -.35, p < .001$ )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beta = .38, p < .001$ ), 허용 · 방임( $\beta = -.19, p < .05$ ), 거부 · 제재( $\beta = -.31, p < .001$ )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여아의 경우 어머니 양육행동이 덜 방임적이며 덜 거부적일 때 자아정체감이 높아지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아의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여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남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 155)

		자아정체감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년	.02	.03	-.03	-.05	-.01	-.02
	모(母)국적#1	-.22	-.22*	-.20	-.20**	-.18	-.18**
	모(母)국적#2	-.29	-.21*	-.00	-.00	.00	.00
어머니양육 행동	온정·수용			.26	.35***	.16	.21
	허용·방임			-.14	-.13	-.10	-.10
	거부·제재			-.39	-.41***	-.36	-.38***
학교생활만족도						.25	.29***
F		2.95*		18.35***		19.83***	
R <sup>2</sup>		.06		.43		.49	
R <sup>2</sup> 변화량		.06		.37		.06	
DW				2.00			

주. #1 가변수(일본 = 1, 중국 = 0), #2 가변수(필리핀 = 1, 중국 = 0)  
\*p < .05. \*\*p < .01. \*\*\*p < .001.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여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 142)

		자아정체감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년	-.04	-.06	-.03	-.04	.00	.00
	모(母)국적#1	-.20	-.18*	-.18	-.16*	-.15	-.14
	모(母)국적#2	-.17	-.11	-.10	-.06	-.15	-.10
어머니양육 행동	온정·수용			.12	.15	-.01	-.01
	허용·방임			-.23	-.22**	-.19	-.19*
	거부·제재			-.34	-.35***	-.30	-.31***
학교생활만족도						.35	.38***
F		1.49		10.09***		13.57***	
R <sup>2</sup>		.03		.31		.42	
R <sup>2</sup> 변화량		.03		.28		.11	
DW		2.11					

주. #1 가변수(일본 = 1, 중국 = 0), #2 가변수(필리핀 = 1, 중국 = 0)  
\*p < .05. \*\*p < .01. \*\*\*p < .001.

영향력은 어머니 양육행동의 설명력(R<sup>2</sup> = .28)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만족도(R<sup>2</sup> = .11), 사회인구학적 변인(R<sup>2</sup> = .03)순이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여아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어머니 양육행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델 III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여아의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생활만족도(β = .38, p < .001), 거부·제재(β = -.31, p < .001)순으로 나타났다.

2) 국적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 모델 I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 II에 온정·수용(β = .30, p < .01), 거부·제재요인(β = -.44, p <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모델 III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β = .46 p < .001), 거부·제재(β = -.39, p < .0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머니 양육행동 설명력(R<sup>2</sup> =



〈표 8〉 어머니 국적이 중국인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 102)

		자아정체감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성별#	-.03	-.03	.04	.04	.00	.00
	학년	.01	.01	-.02	-.02	.02	.02
어머니양육 행동	온정·수용			.27	.30**	.08	.08
	허용·방임			-.06	-.05	-.04	-.04
	거부·제재			-.48	-.44***	-.42	-.39***
학교생활만족도						.46	.46***
F		.05		12.60***		18.90***	
R <sup>2</sup>		.00		.40		.54	
R <sup>2</sup> 변화량		.00		.40		.14	
DW				2.05			

주. # 가변수(남 = 1, 여 = 0)

\*\*p < .01, \*\*\*p < .001.

〈표 9〉 어머니 국적이 일본인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 150)

		자아정체감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성별#	-.06	-.06	-.04	-.04	-.05	-.05
	학년	-.02	-.04	-.03	-.05	-.01	-.02
어머니양육 행동	온정·수용			.15	.21**	.07	.10
	허용·방임			-.22	-.21**	-.17	-.16*
	거부·제재			-.32	-.36***	-.29	-.33***
학교생활만족도						.24	.30***
F		.43		12.80***		14.31***	
R <sup>2</sup>		.01		.31		.38	
R <sup>2</sup> 변화량		.01		.30		.07	
DW				1.61			

주. # 가변수(남 = 1, 여 = 0)

\*p < .05, \*\*p < .01, \*\*\*p < .001.

.40)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만족도(R<sup>2</sup> = .14)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R<sup>2</sup> = .00)은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중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어머니 양육행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델 III을 중심으로 중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생활만족도(β = .46, p < .001), 거부·제재(β = -.39, p < .001)순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 모델 I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

델 II에 온정·수용(β = .21, p < .01), 허용·방임(β = -.21, p < .01), 거부·제재(β = -.36, p < .001)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모델 III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β = .30, p < .001), 거부·제재(β = -.33, p < .0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머니 양육행동의 설명력(R<sup>2</sup> = .30)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만족도(R<sup>2</sup> = .07), 사회인구학적 변인(R<sup>2</sup> = .01)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본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어머니 양육행동임을 알 수

〈표 10〉 어머니 국적이 필리핀인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 45)

		자아정체감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성별#	-.17	-.18	.04	.04	.05	.05
	학년	.01	.02	.01	.02	.01	.02
어머니양육 행동	온정·수용			.18	.28**	.11	.18
	허용·방임			-.27	-.35*	-.26	-.34*
	거부·제재			-.25	-.29	-.22	-.26
학교생활만족도						.13	.17
F		.43		12.80***		14.31***	
R <sup>2</sup>		.03		.34		.35	
R <sup>2</sup> 변화량		.03		.31		.01	
DW				1.65			

주. # 가변수(남 = 1, 여 = 0)

\*p < .05, \*\*p < .01, \*\*\*p < .001.

있다. 또한 모델 III을 중심으로 일본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거부·제재(β = -.33, p < .001), 학교생활만족도(β = .30,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 모델 II에 온정·수용(β = .28, p < .01), 허용·방임(β = -.35, p < .05)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모델 III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허용·방임(β = -.34, p < .05)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머니 양육행동 설명력(R<sup>2</sup> = .31)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R<sup>2</sup> = .03) 학교생활만족도(R<sup>2</sup> = .01)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필리핀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어머니 양육행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델 III을 중심으로 필리핀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허용·방임(β = -.34, p < .05)요인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는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덜 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정체감의 차이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성별의 차이를 보면 거부·제재요인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는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신체적 처벌과 통제를 더 많이 하는 한편 여아에게는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Block, 1983; Lytton & Romney, 1991)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지각이 높고, 통제적 양육행동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성심, 2002; 노경선, 심희옥, 2004; 이주희, 이춘재, 200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주가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문화적응 정도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Coll & Patcher, 2002). 광금주(2008)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일반가정의 어머니들보다 더 우울하며 더 비관적이고 양육스트레스도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상호작용 동안 일반가정의 어머니보다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과제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자극을 덜 제공하였고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강압적으로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에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녀 학생 간에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김미경(2000), 임명숙(199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생활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 차이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결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종길(1992)의 연

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과제에 덜 지속적이고 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성취감을 얻고 즐거워하는 정도도 일반 아동보다 더 낮다는 연구가 있다(곽금주, 2008). 이러한 연구는 한국출생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도취하기보다는 새로운 문화에 진입하는 초기에 심리적·사회문화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다는 연구와 유사함을 보였다(Ward & Kennedy, 1994).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없다는 박영란(2002), 이연자(200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남녀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밝히는 Erikson(1963)의 연구나, 남녀간의 정체감의 차이에 대하여 문화적인 영향일 뿐 다른 발달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힌 Waterman(198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년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에 차이가 없었다는 노진숙(2009), 오영미(199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변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변화되듯이 문화와 사회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 어머니는 자신이 자라왔던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송미경, 신효정, 이은정, 2008).

다섯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5학년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4학년이며, 6학년이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부겸(2004)과 신혜정(2007)의 결과와 일치하며 6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모든 과정과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 및 물리적 환경을 경험하여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5학년에 비해 앞서고, 6학년은 5학년에 비해 수업내용은 더 어려워지고 학교내외의 활동욕구와 영역도 더 넓어지지만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이 이러한 변화된 요구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있어 만족도는 오히려 4, 5학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년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연자(2005), 조미숙(200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일곱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동이 일본인과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보다 온정·수용에서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거부·제재 요인에서는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이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본과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동이 동남아인 어머니를 둔 아동에 비해 부모 관계를 높게 지각한다는 남윤주(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여덟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국적에 따른 학교적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혜정(200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문화적 특성이 비슷한 서로에게 더 강한 친밀감을 느끼고 쉽게 어울리며 동질집단의 결속으로 이어졌다(한정에, 2009).

아홉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자아정체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은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혜정(200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이는 자신의 외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시기는 '초등학교 때'가 가장 많았다는 연구(금명자 외, 2006)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회적 자의식을 느끼게 되어 사회에서 보는 자신에 대해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첫째, 성별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남아, 여아 두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이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에 있어서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심리적 안정감의 조건이 됨을 시사한 남윤주(2009)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변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는 거부·제재를, 여아는 학교생활만족도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온정적·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거부·제재·위협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나, 남아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연구(Bishop & Ingersoll, 1989; Coopersmith, 1967)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대인관계에서 민감하고 애착적이며 대인간의 친밀한 관계와 정서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

생에게 관계 및 정서적 유대가 더 중요한 관심이며, 이에 따라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또래 애착이 보다 친밀하다(Gullone & Robinson, 2005; Wilkinson, 2004)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어머니 국적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중국, 일본,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 모두 어머니 양육행동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개별 요인들로는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 거부·제재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머니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조선족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통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임연신, 현온강, 2002)와 맥을 같이한다.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개별 요인들로는 거부·제재, 학교생활만족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어머니가 일본 어머니보다 덜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최순자, 2005a)와 일본의 아동들이 중국, 한국 도시의 아동들과 비교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비교적 대등하다(최순자, 2005b)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의 개별 요인들로는, 허용·방임 변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은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이며 그 중 인구의 80% 이상이 로마 가톨릭을 신봉함으로써 동질적인 종교적 심성을 공유하고 있음(정영국, 1993)으로 이러한 필리핀 기독교의 역사적인 뿌리를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도 형성되었을 것이다.

국적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자아정체감 설명력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 이민자들은 이미 한국어에 능숙해 있거나 습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경제적 적응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연구(설동훈, 윤흥식, 2008)와 한국어만 사용하는 중국 조선족 부인이 7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일본 부인이 두 번째로 높았고 그 외 필리핀 부인이 40% 미만으로 낮았다는 연구(정기선, 김영혜, 박경은, 이은아, 박지혜, 2007)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로서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각 민족 간에는 오랫동안 서로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민족 간의 차이에서 오는 적대감이나 편견 등이 별로 존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주류민족인 한족과 어울려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호, 2008). 이처럼 오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점차 형성된 민족정책은 이들이 주류사회로 편입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국보다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에서 낮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미래확신성 부분에서 중국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국제결혼의 동기가 대부분 특정 종교단체의 주선을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한 것이므로 난립한 결혼중개업체들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는 점, 즉 결혼의 동기가 계층상승의 열망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선택했다기 보다는 인종집단 및 종교집단간의 첨예 되어 온 갈등의 벽을 넘어 화해를 도모시키며 국가 간의 화합을 이루는데 국제결혼이 큰 공헌을 할 것이라는 믿음(Ando Makota, 2004)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미래확신성 부분에서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 자아정체감의 하위 중 주체성에서 필리핀이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필리핀 여성들은 국제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태도는 필리핀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에 의해 식민통치를 받는 동안 이종족간 혼인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김민정, 2002), 여성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나 형제를 돕기 위해 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이나 자신의 행복보다 부모에 대한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주노동도 가족을 돕기 위한 일로 이루어져 특히 딸로서 이주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가족 성원들의 의무감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임안나, 2005). 이러한 문화적응전략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아동의 관계에도 세대 간에 전이되어 주체성 변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북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 3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아동에 대한 결과라고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라도 지역의 양육문화인 지역적인 특성이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룬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가정이나 새터민 가정으로까지 확대하여 다문화 가정의 형태에 따른 차이점을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나이를 감안할 때 그들의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온 시기는 대부분 10년 이상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시기에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은 중국과 일본계 여성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계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한국인과 생김새가 비슷하여 자아정체감의 영향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 자녀의 자아정체감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정체감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과 어머니 국적에 따라 정체성 형성을 위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어머니 국적에 따라 자아정체감을 알아봄으로써 아동이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어머니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함께 반영한 부모교육과 적절한 놀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머니 양육행동임을 감안 할 때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특성을 위해서 출산 전 예비 부모교육부터 어머니 역할과 관계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함을 밝힘으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 참고문헌

강윤정(2005).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측정도구개발. **초등교육학**, 12(2), 184-204.

곽금주(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1-26.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구창모(2005). 체육계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4(1), 57-66.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 소년) 연구: 사회적 실태조사 및 교정관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경자(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무겸(2004). 초등학교 아동의 권리인식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

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미경(2000).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민정(2002). 필리핀 농촌마을의 권력관계와 성차, 그리고 모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21-48.

김성심(2002). 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은(2003).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류분석의 스트로크 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호(2008). 중국의 소수민족교육과 다문화교육. **사회과학**, 47(1), 103-131.

김지현(1999). 아동의 자아개념이 담임교사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윤주(2009).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관한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노경선, 심희옥(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 괴롭힘 경험. **아동학회지**, 25(6), 241-257.

노경숙(1983). 학교학습의 성패경험에 따른 자아개념 및 인과귀인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진숙(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초등학교생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민하영, 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박미경(2006).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결혼 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아청(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3.

박아청, 이승국(2000).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

- 석. **교육논총**, 20(2), 255-282.
- 박영란(2002).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설동훈, 윤홍식(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4(2), 109-133.
- 송미경, 신효정, 이은정(2008).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267.
- 송신진(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지혜(2008). 국제결혼이주여성 자녀와 일반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현주(2006). 한국남성과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 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오성배(2005). 코시안의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배(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2.
- 오영미(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15.
- 유석춘(1994). 필리핀의 사회제도. **동남아시아 연구**, 3(1), 91-126.
-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 주부들의 갈등과 적응-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회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강이(2002).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65-76.
- 이소희, 최운선(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화정체감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 13(3), 163-185.
- 이승은, 서현(2008).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들의 교육실태 및 교사의 인식-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4), 147-166.
- 이연자(2005).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부적응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길(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희, 이춘재(200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과학연구**, 19, 83-117.
- 이해명(2006). 다문화가족 이야기. **복지동향**, 76, 7-11.
- 이현림, 천미숙(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 연구**, 10(4), 511-541.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명숙(1997).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안나(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조국가 연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연신, 현온강(2002). 한족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37.
- 정기선, 김영혜, 박경은, 이은아, 박지혜(2007).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기족지원 장단기 계획**. 수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영국(1993). 마르코스 권위주의 체제와 Moro 분리독립운동. **지역연구**, 2(4), 31-55.
- 정옥분(1998).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정하성, 우룡(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연구보고서 요약집**, 91-93.
- 조미숙(200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최영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채옥희, 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6(1), 61-73.
- 최순자(2005a).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도덕성 관계-한국과 일본의 비교-.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순자(2005b). 아동의 가정생활의식에 대한 국제 비교-대

- 만, 중국, 일본, 한국. **한국일본교육학 연구**, 10(1), 79-103.
- 최정순(2008). 다문화시대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 **이중언어학**, 37, 287-316.
- 최창진(2003). 가족의 구조적 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지**, 39(1), 198-243.
- 한건수, 설동훈(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의 한 유형,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1-16.
- 한정애(2009).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능력과정 분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지현(1999). 아동의 성, 학년, 인지양식에 따른 자아개념의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do Makota(2004). 국제축복가정의 역사와 의의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ishop, S. M., & Ingersoll, G. M.(1989).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family structure on the self-concepts of pre-and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25-38.
- Block, J. H.(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Cohen, N.(1982). Same or different? A problem of identity in cross-cultural marriage. *Journal of Family Therapy*, 4, 177-199.
- Coll, C. G., & Patcher, L. M.(2002). Ethnic and minority parenting. in Bornstein. M. H.(Eds.), *Handbook of Parenting*(pp. 1-20).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ignan, S. M. H.(1965). Ego identity and materi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Association*. New York: W. W. Norton & Co.
- Erikson, E. H.(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Co.
- Garrod, A., Ward, J. V., Robinson, T. L., & Kikenny, R.(1999). *Souls looking back: Life stories of growing up back*. New York: Routledge.
- Grotevant, H. D., & Cooper, C.(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Gullone, E., & Robinson. K.(2005).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for children: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2, 67-79.
- Herring, R. D.(1992). Biracial children: An increasing concern for elementary and middle-school counselors.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27, 123-130.
- Lytton, H., & Romney, D. M.(1991). Parent's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boys and girl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2), 267-296.
- McRoy, R. G., & Freeman, E.(1986). Racial identity issues among mixed-race children. *Social Work in Education*, 8, 164-174.
- Porterfield, E.(1982). Black inter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In Cretser, G. A., & Leon, J. J.(Eds.), *Inter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Haworth Press.
- Poston, W.(1990). The biracial identity development model: A needed addi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152-155.
- USA Group Novel-Levitz(2003). National Student Satisfaction Report. I. A.: USA Group Novel-Levitz(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79 160).
- Ward, C., & Kennedy, A.(1994). Accultur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Relations*, 18(3), 329-343.
- Waterman, A. S.(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
- Wilkinson, R. B.(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479-493.

Williams, T. K., Nakashima, C. L., Kich, G. K., & Daniel, G. R.(1996). Being different together in the university classroom: Multiracial identity as transgressive education. In Root, M. P.(Eds.), *The Multiracial experience: Racial borders as the new frontier*. Thousand Oaks, CA: Sage.

---

접 수 일 : 2010년 1월 29일

심사시작일 : 2010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 2010년 3월 22일